

# 태웅 POWER 직류 삼파장 인버터 램프

비상동, 여행, 낚시, 등산, 오토캠핑, 이동매점, 경차, 바닷가, 캠핑장, 야외현장작업, 이동식포장마차, 시골원두막, 농어촌의 야간 작업등 어디서나 전기램프의 사용이 편리합니다.



하재경 | 대표



TAIWOONG ELECTRONICS CO., LTD.

## 태웅 전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48-1  
TEL : (02)2687-7832 / FAX : (02)2687-7833



1994년 4월에 태웅전자로 설립되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서 창업하였다. 2002년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48-1으로 이전하여 현재 직류전원장치 및 교류어댑터 및 가정용 소형변압기 및 휴대용 삼파장 램프 전원공급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 정착하였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CE승인 및 UL승인과 신제품 개발로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등록 출원 등을 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였고 생산 제조하고 있다.

회사의 사훈 "인화, 자율, 창의"라는 이념 아래 전 사원이 한마음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건실한 기업이다.

최초 휴대용 삼파장 램프는 전기 없이도 어디서나 때와 장소 구별없이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인버터 AC220V 및 DC인버터로 사용 개발하여 삼파장 램프 및 DC 삼파장 램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재경 대표는 1979년 (주)풍한전기 입사한 후 구매, 자재관리, 영업, 영업관리, 생산, 생산관리를 담당하였고, 트랜스, 직류전원장치, 소형변압기의 생산업체를 거쳤다. 그후 1984년도에는 일본 TND업체 메카니즘(DECK)업체 생산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989년도 직류전원장치 및 소형변압기, 트랜스의 제조 생산업체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1994년도 중년 나이에 태웅전자를 설립하였다. 창업사회에 신개발 제품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웅대한 뜻을 품고 태웅전자를 설립하였다.

항상 직원 모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태웅전자 전 직원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며 회사의 내실을 돈독히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회사를 지향하며 목표로 삼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좌우명도 윤집결중(允執厥中), “모름지기 그 중심을 잡아라”. 매사에 실체를 파악하고, 그 정곡(正鵠)을 찌르라는 것이다.

2001년도 모델 TW-1235K-1P 신제품 2005년도 모델

TW-125K-1P, TW-125K-2P 신개발 제품을 생산하였다. 2006년도 신제품인 태웅 POWER 직류 삼파장 인버터 램프인 휴대용 삼파장 램프 전원공급장치를 판매 거점으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직류전원장치 및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트랜스 생산 원가 상승과 중국 저가 제품수입으로 국내 및 외국 수출에 차질이 생겼고 회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품목은 직류전원장치, 교류어댑터, 트랜스, 소형변압기, 아답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Best seller 제품으로는 태웅 POWER 직류삼파장 인버터 램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모델 TW-125K-1P, TW-125K-2P, TW-1235K-1P이며 제품생산, 판매하고 있다.

태웅 POWER 직류 삼파장 인버터 램프의 특징으로는 휴대하기가 간편하여 아무곳에서나 사용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 없이도 어디서나 AC220V사용 램프, 차량 DC12V 충전시 AC220V 사용램프, 쏘라충전 사용이 가능하다.

비상등, 여행, 낚시, 등산, 오토캠핑, 이동매점, 강가, 바닷가, 캠프장, 야외현장작업, 이동식 포장마차, 시골원두막, 농어촌의 야간작업, 노점상, 아파트 관리소, 경비실 야간근무, 휴가, 장마철 및 전기 단전시, 수험생 공부 등 간편하게 사용하며 어디서나 전기 없이도 충전 사용이 편리하다.

태웅전자에서 생산된 제품의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Feed - back을 통하여 제품의 향상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여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A/S에 노력하고 있다.

“꾸준한 신제품 개발 및 판로를 개척하여 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당찬 포부이다.